

손해보험 (OVERWEIGHT): 건수제로의 전환은 장기적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

- 금융감독원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·할증 기준 개선안 발표
- 건수제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
- 다만, 시행시기가 2018년으로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

■ 금융감독원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전환을 근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기준 개선안 발표

- 금융감독원은 전일 1989년에 도입된 현행 자동차보험 할인·할증제도 개선안을 발표. 이번 개선안은 2016년까지 통계 집계 후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임
- 주요 내용은 할인·할증 기준 변경, 복합사고 할증수준 축소, 연간 할증한도 신설 등임. 이들 주요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할인·할증 기준을 기존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

■ 건수제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

- 할인·할증 기준을 점수에서 건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사고건수 및 사고접수 하락 가능성으로 발생손해액 감소 효과 기대. 하지만 무사고에 따른 할인 혜택도 3년 무사고 시 1등급 할인에서 1년 무사고 시 1등급 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감소 효과도 발생함
- 하지만 사고건수 및 사고접수 감소로 인한 발생손해액 감소효과가 할인 혜택 확대로 인한 보험료 감소효과보다 클 것으로 판단하며, 이번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기준 변경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. 다만, 시행시기가 2018년으로 이로 인한 수익성 개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

표 1.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방안

제도개선방안 (세부항목)	현행	개선방안
할인·할증 기준 변경	할증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.5~4점 부과 (1점당 1등급 할증) 할인 3년간 무사고 시 1등급 할인	1회 사고 시 2등급 할증 (단, 50만원 이하 물적단독사고는 1등급 할증) 2회 사고부터 3등급 할증 1년간 무사고 시 1등급 할인
복합사고 할증수준 축소	각 보장종목별 (대인, 대물 등) 할증점수를 합산해서 최대 6등급 할증	1건으로 평가해서 2~3등급 할증 (1회 2등급, 2회 이후 3등급)
연간 할증한도 신설	각 사고건수 당 점수를 합산해서 할증 (제한 없음)	각 사고건수 당 등급을 합산해서 할증하되, 연간 최대 9등급까지 할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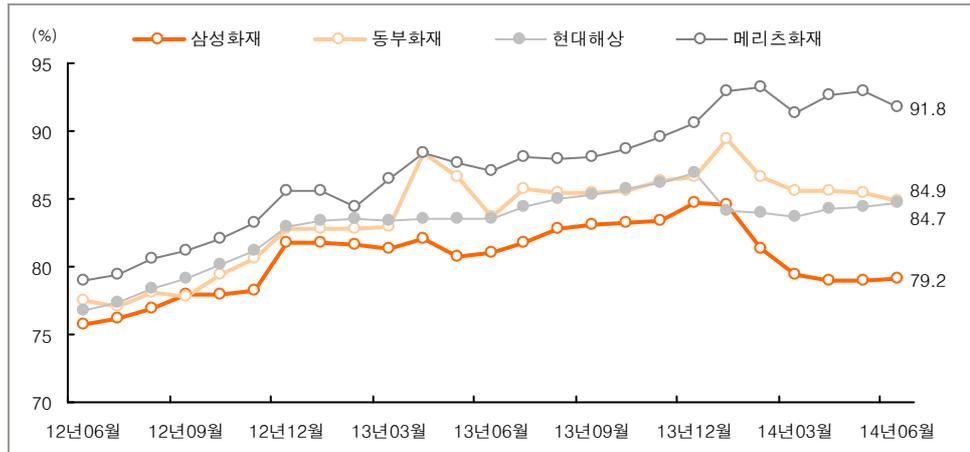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
표 2.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개선 시행시기

시기	2015년~2016년	2017년 중	2018년
내용	통계 집계	현재 검토된 제도 개선방안의 적정성 확인	사고건수제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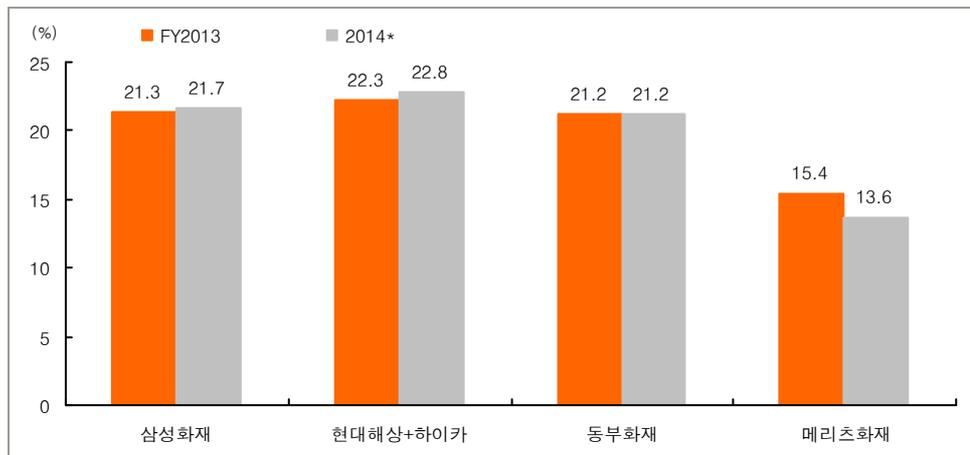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KB투자증권

그림 1. 주요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



자료: 각 사, KB투자증권
 주: Fiscal year 기준 누적 손해율

그림 2. 주요 보험사별 원수보험료 내 자동차보험 비중



자료: 각 사, KB투자증권
 주: *6월까지의 누적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발간일 현재 중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조사 분석 대상 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및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저작물은 KB투자증권(주)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무단전재, 재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